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스승님, 세상이 어찌하여 혼란스럽게 된 것입니까?	2 도(道)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네. 도를 잃어버린 뒤에 결국 예(禮)가 생겨났고, 예로부터 혼란이 시작되었네.
3 그렇다면 스승님이 생각하시는 도란 어떤 것입니까?	4 도는 만물의 어머니와 같다네. 만물을 낳고 길러 주지만 그것을 소유하지 않고 주재(主宰)하지 않는다네.

- ① 겸허히 자신을 낮추고 가식이 없는 소박한 삶을 지향한다.
- ②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아 본성[性]을 교화하기 위해 힘쓴다.
- ③ 삶에서 겪는 힘든 일을 자신의 업보(業報)로 여기며 견딘다.
- ④ 자신을 도덕적 주체로 인식하고 인의(仁義)의 덕을 실천한다.
- ⑤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추구하며 내세를 준비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인간은 모든 사물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성을 가진다. 또한 동물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라 남녀의 결합과 자녀 양육에 대한 경향성을 가진다. 그리고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이라는 본성에 따라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며, 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진다.

< 보 기 >

ㄱ. 인간의 본성에는 창조주의 영원법이 반영되어 있다.
 ㄴ. 인간은 이성이 아니라 신의 계시로 자연법을 알게 된다.
 ㄷ. 인간과 자연은 신적 이성을 공통된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ㄹ.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경향성을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닌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3. 다음은 고대 동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은/는 먹음에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함에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 처리에 민첩하고 말하는 데 신중하며 도(道)가 있는 곳에 나아가 스스로를 바로잡는다.
- 이름[名]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예악이 일어날 수 없다. ㉠이/가 정한 이름은 반드시 명료하게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 ① 다급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인(仁)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다.
- ② 의(義)를 바탕으로 삼고 예(禮)로써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 ③ 경(敬)으로 수양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다.
- ④ 현인(賢人)을 존중하고 예의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 ⑤ 도를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활동을 잊는[坐忘] 사람이다.

4.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개인이 사회에 책임져야 할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관련된 경우뿐이다. 자신에게만 관련된 경우 그 사람의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타인이나 국가에 의해 침범당할 수 없는 주권자이다.
 을: 시민적 덕성은 공화국의 토대이다. 공화국은 공동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의 태도와 능력, 즉 시민적 덕성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훌륭한 시민은 공화국에 대한 봉사와 사생활의 조화를 이룬다.

< 보 기 >

ㄱ. 갑은 개인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본다.
 ㄴ. 을은 애국심을 시민이 지녀야 할 덕성이자 책무라고 본다.
 ㄷ. 을은 갑과 달리 공동선과 개인선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ㄹ. 갑, 을은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를 방지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5. (가)의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고통의 부재와 쾌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적이다. 우리는 양과 질 모두의 측면에서 최대한 고통을 피하고 최대한 쾌락을 누려야 한다.</p> <p>을: 이성의 참된 사명은 그 자체로 선택한 의지인 선의지를 낳는 것이다. 선의지는 최고선이고 우리가 행복을 바랄 수 있는 자격 조건이다.</p>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 보 기 >

ㄱ. A: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기와 결과이다.
 ㄴ. B: 보편적 도덕 원리로 행위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
 ㄷ. B: 도덕적 행위는 행위자 자신의 행복과 무관할 수 있다.
 ㄹ. C: 실천 이성은 언제나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의 포기를 요청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정의의 덕은 영혼의 건강함, 아름다움, 좋은 상태이며 부정의는 영혼의 질병, 추함, 허약함이다. 영혼의 세 부분이 서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관계를 각각의 성향에 따라 확립함으로써 정의가 생긴다.
을: 품성적 덕은 감정이나 행위와 관련된다. 감정과 행위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은 잘못을 범하지만 중간이 되는 것은 칭찬을 받고 옳게 된다. 품성적 덕은 중간을 겨냥하기 때문에 일종의 중용이다.

- ① 갑: 정의의 덕을 갖춘 사람은 결코 불행해질 수 없다.
- ② 갑: 절제는 영혼의 이성, 기개, 욕구에 공통으로 요구된다.
- ③ 을: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선을 알아도 행하지 못할 수 있다.
- ④ 을: 실천적 지혜를 통해 모든 행위에서 중용을 찾을 수 있다.
- ⑤ 갑, 을: 참된 행복에 이르려면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해야 한다.

7. 중국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도(道)란 곧 이(理)와 같다. 사람이면 모두 따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하면 도이고, 모든 사물에 그 이치[條理]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하면 이이다. 이것은 군신·부자·형제·부부 사이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
을: 예(禮)란 곧 이와 같다. 효의 이는 부모를 섬기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부모의 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사욕에 가려지지 않으면 곧 천리(天理)이니, 마음 밖에서 조금도 보탬 것이 없다.

- ① 갑: 마음의 이와 사물의 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 ② 갑: 도덕 법칙이 내재되어 있는 사물의 이를 탐구해야 한다.
- ③ 을: 천리를 사물에서 실현하면 사물이 그 이치를 얻게 된다.
- ④ 을: 예는 부모를 공경하는 행위를 실천해야 형성되는 덕이다.
- ⑤ 갑, 을: 사욕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

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존재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 동일한 본성을 가진 두 존재가 결합하면 두 배의 힘을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인간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 그러나 정념에 휘둘릴 경우 인간은 서로 대립할 수 있다.
- 정신이 강한 인간은 모든 것이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한다. 그는 불쾌하고 악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은 사물을 혼란스럽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에 유념한다.

- ① 이성에 따르는 삶을 위해 자기 보존의 욕망을 부정해야 한다.
- ② 자유 의지를 발휘하여 감정 발생의 인과 질서를 벗어나야 한다.
- ③ 정신의 최고선은 만물의 초월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 ④ 모든 것이 필연적인 것임을 이해하면 정념의 영향을 덜 받는다.
- ⑤ 이성을 온전히 계발하여 사용하면 어떤 감정도 소멸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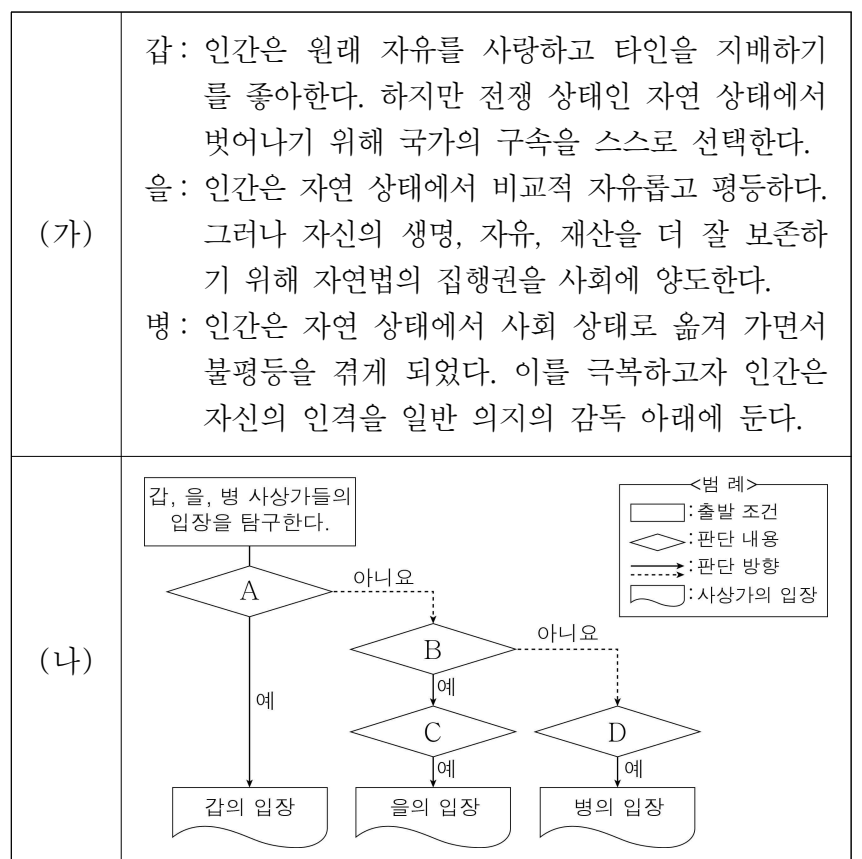
9. 한국 불교 사상이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중생의 마음이 법(法)이다. 대승에서는 모든 법이 별도의 본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일체의 법이 곧 일심(一心)이다. 진여(眞如)와 생멸(生滅)의 두 가지 문[二門]도 오직 일심일 따름이다.
을: 중생은 깨우친 뒤에 소를 기르듯 해야 한다. 이는 깨달은 이후에 점수(漸修)하는 것을 말한다. 깨달음이란 태양이 비치어 만상이 밝아지는 것과 같고, 점수란 거울을 닦아 점점 밝아지는 것과 같다.

— < 보 기 > —
ㄱ. 갑: 자비를 바탕으로 무애행(無碍行)을 실천해야 한다.
ㄴ. 갑: 부처와 중생은 본래 둘이 아님[不二]을 알아야 한다.
ㄷ. 을: 해탈을 위해 지혜[慧]를 떠나 선정[定]을 닦아야 한다.
ㄹ. 갑, 을: 일체가 공(空)이 아닌 무(無)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A: 자연 상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불의한 상황인가?
ㄴ. B: 인민의 자유는 대의제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는가?
ㄷ. C: 권력 견제를 위해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리해야 하는가?
ㄹ. D: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며 군주에게 양도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고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된다. 덕이 쾌락을 주지 못하면 그 덕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힘은 우리 안에 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우리 힘에 의해 생겨나는 일이 다른 주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을: 덕의 바탕은 욕구를 이성애 순종하게 하는 것인데, 이성은 신과 인간, 세계에 공통된 것이다. 지혜란 각 사물의 원인과 결과를 인식하는 덕이며, 절제란 욕구할 것과 기피할 것을 이성이 판정한 바를 고수하는 덕이다.

- ① 갑은 인간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본다.
② 갑은 사려 깊은 사람은 즐겁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③ 을은 이성애 따른 삶과 자연애 따른 삶이 상이하다고 본다.
④ 을은 덕을 갖춘 사람은 신의 예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⑤ 갑, 을은 평온한 삶을 위해 자연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본다.

1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승리라는 명예와 전쟁에서 얻는 이익[利]이 탐이 나서 전쟁을 한다. 그러나 명예는 생각해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는 이익을 계산해 보아도 오히려 잃는 것이 더 많다. ... (중략) ...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서로를 사랑한다면[兼相愛]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고 가문과 가문이 서로 싸우지 않게 된다.

< 보 기 >
ㄱ. 겸애를 실천하는 사람도 방어 전쟁에 참가할 수 있다.
ㄴ. 다른 나라들 간의 전쟁에는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
ㄷ. 자기 나라를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
ㄹ. 천하의 이익을 버리고 예악을 숭상해야 혼란이 극복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갑,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은 인간의 미래다. 여기서 미래가 하늘에 쓰여 있고 신이 미래를 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 미래는 이미 미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아무런 도움도 없이 매순간 스스로를 창조하도록 선고받았다.
을: 인간은 정신이다. 정신이란 자아이며, 자아란 자기 자신과 맺는 하나의 관계이다. 신 앞에서 자신을 정신으로 의식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리 삶을 심미적으로 즐긴다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병, 곧 절망에 빠진다.

- ① 인간은 신앙 없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② 인간은 자유 자체를 선택해야 자유로울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③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주관적 진리임을 모르고 있다.
④ 인간의 정해진 본질을 따라야 절망이 극복됨을 모르고 있다.
⑤ 인간이 주체적 결정을 회피하면 절망에 빠짐을 모르고 있다.

14. 다음을 주장한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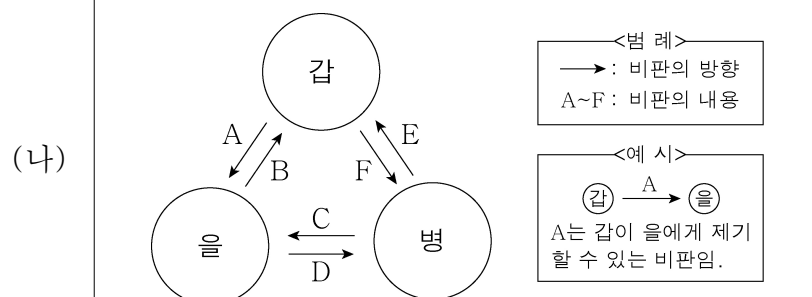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行]가 있고,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의식[識]이 있으며, 의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名色]이 있고,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기관[六入]이 있으며, 여섯 감각 기관을 조건으로 접촉[觸]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受]이 있으며, 느낌을 조건으로 갈애[愛]가 있고,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取]이 있으며,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有]가 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生]이 있으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老死]이 있다.

< 보 기 >
ㄱ. '나'라는 존재는 오온(五蘊)의 일시적 결합에 불과하다.
ㄴ. 연기(緣起)에 의해 형성된 모든 존재는 무상(無常)하다.
ㄷ. 무명은 원인과 조건[因緣] 없이 생겨난 근본적 무지이다.
ㄹ. 인간은 생각, 말, 행동으로 짓는 업(業)에 의해 윤회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고대 중국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사람들은 자도(子都)와 같은 이가 아름다운 줄을 안다. 이처럼 눈이 아름답게 여기는 바는 똑같다. 마음이 똑같이 여기는 바는 무엇인가? 이(理)와 의(義)이다. 이 마음을 따르면 대인(大人)이 된다.
을: 사람들은 추하면 아름다워지길 바라고 가난하면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진실로 자기에게 없는 것은 밖에서 구하려 한다. 이를 본다면 사람이 선하게 되려는 것은 본성[性]이 악하기 때문이다.
병: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신기해 하고 추한 것을 흉하게 여기지만 흉한 것은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은 흉한 것이 된다. 성인(聖人)은 만물이 하나[一]임을 통달하여 작위(作爲)가 없다.



- ① A: 마음에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간과한다.
② B: 본성의 변화 없이는 도덕적 인식이 불가능함을 간과한다.
③ C: 본성을 닦아서[性修] 타고난 덕을 회복해야 함을 간과한다.
④ B, E: 시비(是非)의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음을 간과한다.
⑤ D, F: 만물은 상이한 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한다.

16. 이상 사회에 대한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정의로운 나라에서는 철학자가 ‘좋은 자체’를 본보기로 삼아 나라를 다스린다. 또한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나라 전체가 조화롭게 된다.
을: 유토피아에서는 시민들이 남녀 구별 없이 하루 여섯 시간만 노동하며 여덟 시간을 잔다. 일하거나 먹거나 잠을 자지 않는 나머지 시간은 주로 지적인 활동에 사용된다.

- ① 갑: 계층 간의 역할 교환을 해악으로 간주하는 사회이다.
② 갑: 구성원들 각자가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사회이다.
③ 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이다.
④ 을: 어떤 시민도 필요 이상의 재화를 요구하지 않는 사회이다.
⑤ 갑, 을: 생산에 참여한 사람만이 사유 재산을 갖는 사회이다.

[17~18]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기질이 치우치고 막혀 있는 사물은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청탁(淸濁)과 수박(粹駁)의 기질적 차이가 있으나 마음이 텅 비고 밝아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요순이 될 수 있다.’는 맹자의 말은 헛된 것이 아니다. 기질을 바로잡아[矯氣質] 기의 본연을 회복해야 한다.
을: 기질 때문에 선악이 나뉘다면 요순은 저절로 선한 것이니 사모할 것이 없고 결주는 저절로 악한 것이니 경계할 것이 없다. 선악은 유동적이며 선악에 대한 선택권[權]은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자신의 공(功)이 되고 악을 행하면 자신의 죄가 된다.

1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갑은 기질이 배제된 인의예지 자체를 마음의 작용으로 본다.
② 을은 사단을 꾸준히 실천해야 도심(道心)이 형성된다고 본다.
③ 갑은 을과 달리 기질이 본성[性]의 선악과는 무관하다고 본다.
④ 을은 갑과 달리 인간의 도덕적인 본성을 이법적 실체로 본다.
⑤ 갑, 을은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 경(敬)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18.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에게 갑의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의예지의 성(性)은 순수하게 마음속에 있으며 사단은 그 단서이다. 밖의 사물이 다가오면 쉽게 감응하여 먼저 움직이는 것이 형기(形氣)인데 칠정은 그 짝이다. 사단과 칠정은 이(理)와 기(氣)를 벗어나지 않지만 그 말미암아 오는 바를 근거로 말한다면 사단은 이가 되고 칠정은 기가 된다.

- ① 사단이 기에 가려지면 불선(不善)이 있게 됨을 모르고 있다.
② 사단은 밖의 사물에 감응하여 움직이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③ 사단의 선과 칠정의 선은 서로 구분되지 않음을 모르고 있다.
④ 사단을 확충해야 사덕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
⑤ 사단과 칠정은 단지 기질의 차이만 있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

19.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각각의 것은 내게는 내게 나타나는 대로이고,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나타나는 대로이다.

갑



인간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의미가 보편적으로 규정된 말을 사용하고 이성을 발휘함으로써 존재하는 것들의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

을



< 보 기 >

- ㄱ. 갑: 개개인의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ㄴ. 을: 지혜의 덕을 갖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ㄷ. 을: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무지의 결과이다.
ㄹ. 갑, 을: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본주의 체제의 주된 결함은 완전 고용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완전 고용 달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여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을: 자본주의를 대체하기 위해 사회주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선하는 체제를 지향한다. 우리는 완전 고용, 보다 높은 생산 등을 통해 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병: 자본주의의 자유 경쟁 체제는 가장 효율적이고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체제이다. 더 큰 번영과 자유를 약속한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 체제는 노예의 길로 가는 첩경이다.

- ① 갑: 정부는 공공 지출의 확대를 통해 유효 수요를 줄여야 한다.
② 을: 정부는 평등 실현을 위해 모든 생산 수단을 공유해야 한다.
③ 병: 정부는 생산의 극대화를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
④ 갑, 을: 정부는 완전 고용을 위해 정부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⑤ 갑, 병: 정부는 중앙 집권 경제를 통해 시장을 조정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